

■ KAA 광장

1. 한국광고주협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광고주협회는 2월 22일 오전 11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20층 경제인클럽에서 200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99년 사업보고와 결산안 심의, 2000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0년 사업 목표를 쫓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쪽 통합방송법 시행 등 광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쪽회원의 광고·마케팅 활동 지원 쪽회원교류 활성화로 정하고, 조사 및 연구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광고주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ABC제도 정착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광고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병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가 지난 1년 동안 회원들의 권익과 광고의 자유신장을 위해 각종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회원서비스 사업에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전제하고 ?올해에는 협회의 사업이 회원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덧붙여 ?광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광고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2000년에는 광고주 권리 찾기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고주협회는 한국마케팅포럼 등 다양한 소모임 활성화, 인쇄매체수용자조사 등 각종 자료제공 및 회원사간 분쟁조정장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부회장에 LG전자 정병철 사장을 선임했다.

2. 한국마케팅포럼 통합방송법 관련 워크숍 개최

한국마케팅포럼은 2월 19~20일까지 제주도 풍림콘도에서 '통합방송법 시행 이후의 광고전략'이라는 주제로 2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회원들은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민간기구 위탁에 대해 ?스토리보드와 실제 광고물 제작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토리 보드만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며, ?사전심의 기능이 민간기구에 위탁될 경우 공정위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슬립광고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편성권 침해 주장을 펴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며, 방송사는 단지 광고 시간을 방영하는 책임만 있을 뿐 광고주의 광고물량에 자막을 게재할 권리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덧붙여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광고제작물에 대한 낙서에 가까운 것으로 광고주협회의 강력한 대응이 요망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회사와 제작사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해서는 프로덕션에 대한 광고회사의 불합리한 거래관행과 지불조건이 관련된 사항이므로 광고주가 광고회사에 비공식적인 압력을 넣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고제작물의 퀄리티가 제대로 보장된다면 프로덕션에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비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거래를 통한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마케팅포럼 차원에서 차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무국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회사와 제작사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해서는 프로덕션에 대한 광고회사의 불합리한 거래관행과 지불조건이 관련된 사항이므로 광고주가 광고회사에 비공식적인 압력을 넣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고제작물의 퀄리티가 제대로 보장된다면 프로덕션에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비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거래를 통한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마케팅포럼 차원에서 차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무국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마케팅포럼의 조사사업 공동추진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는 회원들의 중복조사에 따른 과다비용의 절감 및 정보 공유를 위해 마케팅포럼 독자적으로 방송매체수용자조사, 광고회사조사, 인터넷사용자조사, 신문광고효과조사, 옥외광고효과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